

Gideon: The Assurance of Grace (Judges 6) 기드온: 은혜의 확신 (사사기 6장)

A Question of Assurance

After seeing the Lord's rescue through Israel's prophetess & judge, Deborah...the non-Israelite lady Jael & the initially hesitant Barak. We come to the next deliverer, Gideon...

In this chapter, Gideon is so painfully unsure of himself as to dwarf Barak's beginnings. He craves two particular signs & a third in the next chapter from the Lord in an effort to gain assurance.

What's incredible is the Lord's patience – His grace to Gideon – that surrounding Gideon's uncertainty & self-doubt...the Lord reassures Him by His grace...

The grace of the promise of His presence with a sign...The grace of His priority & The grace of His presence with the sign. As we see the Lord's grace to the self-doubting Gideon...It's a mirror that brings a challenge. The question, 'am I grace-assured or self-assured?' We may naturally assume we're the former...we know grace...believe grace...proclaim grace “

Alistair Begg, “Self-assured people don't pray.” The practical sign of how grace-assured we are is our dependence on the Lord in prayer... Spurgeon, “I know of no better thermometer to your spiritual temperature than this, the measure of the intensity of your prayer.”

We all struggle on that continuum between being confident in the Lord & trying to find it in ourselves. I've even found that times when I lack confidence & don't pray ...that it's a sure sign I'm depending on myself...when I do pray...the Lord's grace is sufficient to glorify Himself through my weaknesses.

확신의 문제.

주님께서 데보라, 야엘 그리고 망설였던 바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후, 우리는 그다음 구원자인 기드온을 봅니다.

이번 장에서 기드온은, 우리가 전 장에서 봤던 바락과 같이 매우 망설이며,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신에 대해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장에서 두 번의 증표를 그리고 다음 장에서 또 하나의 증표를 간구함으로 확신을 얻으려 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런 불확신 가운데 있는 기드온을 향한 주님의 인내심과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이렇게 의심으로 가득한 기드온을 향한 주님의 은혜는, 우리 모습의 거울이 되며,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물을 수 있습니다, 나의 확신은 은혜로 말미암은 확신인가, 아니면 자신의 확신인가? 우리는 보통 은혜로 말미암은 확신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알고, 은혜를 믿으며 은혜를 선포하기에.

Alistair Begg라는 분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신의 확신으로 가득 찬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은 은혜로 말미암아 확신을 누리다는 증거는 기도를 통해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느냐로 나타납니다... Spurgeon 목사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기도의 열심은 당신의 신앙 온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체온계와 같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 안에서 확신을 찾으려는 사이에서 늘 고군분투합니다. 저 또한 확신이 없을 때 기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결국, 이는 내가 나만을 의지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표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할 때는, 주님의 은혜가 나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Well, the question of assurance...finds its answer in the Lord – who we are in Him. So, while the passage challenges us – it also drives us back to our identity in Christ for assurance to empower us to renewed worship!

The Pattern in Detail with a Covenant Charge (1-10)

v1, 'The people of Israel did what was evil in the sight of the Lord, and the Lord gave them into the hand of Midian seven years.'

It's the familiar – repeated pattern of Israel's evil with holy response from the Lord this time handing them over to Midian...this time in particular detail:

v2, 'And the hand of Midian overpowered Israel, and because of Midian the people of Israel made for themselves the dens that are in the mountains and the caves and the strongholds. For whenever the Israelites planted crops, the Midianites and the Amalekites and the people of the East would come up against them. They would encamp against them and devour the produce of the land, as far as Gaza, and leave no sustenance in Israel and no sheep or ox or donkey. For they would come up with their livestock and their tents; they would come like locusts in number—both they and their camels could not be counted—so that they laid waste the land as they came in.'

We've already seen the Amalekites in the Sth & two large nations to the east of the Jordan in the Moabites & the Ammonites who'd oppressed Israel for 18 years under Eglon in Judges 3.

Now we find them support the primary enemy of Midian – Genesis 25:2 – descendants of the son, Midian that Abraham had with his other wife, Keturah. Under this new enemy mixed with old ones...the details are there to show how desperate they'd become...living like animals – hiding in clefts/caves & natural forts...a far cry from the life in the land of milk & honey...now their produce is destroyed, the animals stolen and their lives lived in fear.

그래서 확신의 문제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누구인지를 앞으로 주님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면서도,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확고한 정체성을 발견하게 함으로, 우리가 회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패턴의 디테일 (1~10절)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칠 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시니”

우리는 지금 까지 계속 반복되온 패턴을 봅니다... 이스라엘은 악을 행하고,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으로 넘기시고...우리는 특별히 다음 구절에서 더 섬세한 내용을 봅니다:

2~5절 “미디안 사람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억누르니,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산에 있는 동굴과 요새에 도피처를 마련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씨앗을 심어 놓으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쳐올라오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마주보고 진을 쳐놓고는, 가사에 이르기까지 온 땅의 소산물을 망쳐 놓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먹을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으며, 양이나 소나 나귀까지도 남기지 않았다. 그들은 가축 떼를 몰고 장막을 가지고 매뚜기 떼처럼 쳐들어왔는데, 사람과 낙타가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들이 들어와서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새번역)

우리는 이미 사사기 3장에서 보았듯, 남쪽에 있는 아말렉족속 그리고, 요르단강 동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 족속이 에글론왕 아래에서 이스라엘을 18년이란 시간 동안 억압했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이스라엘의 적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5:2절에서 보듯이,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에게서 얻은 아들이 미디안이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적 앞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는지 우리는 오늘 구절을 통해 봅니다.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멀고도 먼, 동굴에서 짐승과 같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소산물을 망가졌고, 가축들은 도둑맞았으며, 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v6, 'Israel was brought very low because of Midian. And the people of Israel cried out for help to the Lord.'

These verses recounting judgement are the longest so far to highlight the serious predicament of what it is to be under God's holy wrath.

For us...in our naturally flawed state of rebellion against God...the Bible's diagnosis is that God's wrath remains...& our only hope is in a Saviour...

It's the 4th occasion in Judges that Israel cried to the Lord...Just when we begin to expect to read that the Lord raised up another deliverer...V8, 'the Lord sent a prophet to the people of Israel. And he said to them, "Thus says the Lord, the God of Israel: I led you up from Egypt and brought you out of the house of slavery. And I delivered you from the hand of the Egyptians and from the hand of all who oppressed you, and drove them out before you and gave you their land. And I said to you, 'I am the Lord your God; you shall not fear the gods of the Amorites in whose land you dwell.'

God gives them what they need before He gives them what they want...His OT people had cheapened His saving grace of simply expecting the Lord to send a rescuer. Instead He sends a prophet to recount His covenant love - His kindness in saving them from Egypt & all their enemies among their oppressors in the land.

His command was clear - in the new land...not to fear the gods of the land...the idols of the Amorites (a synonym for the 'Canaanites') V10b, "But you have not obeyed my voice." To fear other gods was the opposite of fearing the Lord. It was to reverence - follow - worship the Baals & Ashtoreh.

6절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전혀 기를 펴지 못하게 되자,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었다."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이 구절은, 지금까지 심판을 나타낸 다른 구절들과 비교 할 때, 가장 긴 구절로,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곤경의 심각성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우리는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로, 하나님 진노의 심판을 부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구세주께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이 4번째로 주님께 울부짖습니다. 이쯤이면 주님께서 또 다른 구원자를 세우실 것이라 기대할 만 할 때, 주님께서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 하십니다...8~10절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예언자를 보내어 말씀하셨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바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였고, 종살이하던 집에서 너희를 이끌어 내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과 또 너희를 억압하는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내었다. 내가 그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쫓아내었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이다. 너희가 아모리 사람의 땅에서 살고 있으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은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였으나..."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기에 앞서 그들이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구약의 백성들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그의 은혜를 얕잡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구원자를 보내는 대신,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언약적 사랑, 즉 그들이 애굽 땅에 종살이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심 가운데 그들을 구하신 이야기를 다시 전하십니다.

그의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그 이방 신들, 암몬의 우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디다....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10절 후반). 이방 신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 함의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바알과 같은 이방 신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The Lord's charge couldn't be clearer – instead of being faithful...Israel had broken faith by their disobedience that = their spiritual adultery. The Lord cared about the broken relationship with His Old Covenant enough to charge them – to show them their guilt.

The Lord often doesn't give us what we want. He always gives us what we need...Faith means dying to ourselves...even when we do pray – cry out – plead with God...we do it with a sense of entitlement that for God to be good – then He must answer to satisfy my expectations...or else...I'll begin to think He's unfair or not trustworthy...It's really just another form of self-assurance.

Enter the Angel of the Lord to expose Gideon on this very issue... With a follow up of what we see is God's grace for this self-doubting deliverer

Grace for a Self-Doubting Deliverer (11-40)

> The Promise of the Lord's Presence with a Sign (11-24)

V11, 'Now the angel of the Lord came and sat under the terebinth at Ophrah, which belonged to Joash the Abiezrite, while his son Gideon was beating out wheat in the winepress to hide it from the Midianites.'

After the charge of covenant disobedience from the prophet...the account now turns to the start of 3-chapter chapters about the next deliver the Lord is about to raise up – Gideon.

Here we see it begins with the Lord's movement to Gideon by His angel who we see in v14 actually is the Lord. In a number of OT places the Lord appears as a man – the Gk term = 'God appearing' is called 'theophany'

He comes to Gideon who we find was threshing wheat – not out in the open where the wind could clear away the chaff ... but in a winepress – below ground – hiding to avoid the enemy thieves.

이들을 향한 주님의 질책은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신실하기보다는, 불순종으로 믿음을 깨뜨렸고, 그들은 영적 간음에 빠졌습니다. 주님은 옛 언약과 깨어진 관계에 대해 그들을 질책하며, 그들의 죄를 보여 주실 정도로, 그들을 아끼신 것입니다.

주님은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보다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참된 믿음이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의 기대치를 충족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 가운데 기도하지 않나요? 만약 기도의 결과가 나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서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거나, 믿을만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자신의 확신으로 가득 찬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의심하는 자를 위한 은혜 (11~40절)

- 임재의 약속.

11절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언약에 불성실했던 이스라엘을 선지자를 통해 질책하신 후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주님께서 의심하는 기드온을 어떻게 확신의 자리로 인도하시는지 나타내고, 특별히 3단계를 통해 그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 기드온에게 나타나심을 보게 되고, 14절에서 보듯 이는 사실 주님이셨습니다. 구약 여러 곳에서, 주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헬라어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단어로 “theophany”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밀이삭을 타작하고 있던 기드온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바람에 여물이 날아 갈 수 있고, 또 적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v12, 'And the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him and said to him, "The Lord is with you, O mighty man of valor."'

It might seem that the angel's words are sarcastic...how can He call Gideon a 'mighty man of valor' when he's cowering from the enemy in a hole??? It's a word of utter grace – the Lord sees Gideon as who he is in His presence by His power – by His unmerited kindness.....

It's magnified all the more in light of Gideon's ignorance about the predicament of the nation...V13b, '... 'Did not the Lord bring us up from Egypt? But now the Lord has forsaken us and given us into the hand of Midian.'"

Gideon was right that the Lord had given them into the hands of Midian...but fails to see that the very reason He'd done that was over their blatant evil – the covenant warnings through Moses were clear...if they worshiped the gods of the nations, the Lord would hand them over.

Gideon's own father owned the altar to Baal & Asherah! Gideon in his self-doubt is God-ignorant. But rather than the Lord's wrath for Gideon's ignorance, He commands him v14 to go – in his own might & save Israel.

Gideon says, 'how can I save Israel...my clan is the weakest in Manasseh...'. I'm the weakest of the weak.

Instead of looking to the Lord – here's the heart of his doubts – his identity is wrapped up in himself – how powerless he is

12절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말하였다.”*

이 구절에서 천사는 기드온을 “힘센 장사”로 묘사합니다. 포도주 틀에 몰래 숨어서 타작하는 그를 힘센 장사로 묘사함은 천사가 마치 기드온을 비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주님의 은혜 말씀입니다. 주님은 기드온을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조건 없는 선함으로 말미암아 기드온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으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곤경에 대해 무지한 기드온의 모습은 이런 사실을 더욱 부각 시킵니다. 13절 후반,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던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 족속 손에 넘기셨다는 기드온의 말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노골적인 악행 때문이란 걸 보지 못했습니다. 모세를 통한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면 그들을 이방 족속의 손에 넘기시겠다는 주님의 경고는 매우 분명했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가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소유 했으며, 기드온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가운데 의심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드온의 무지함에 분노하시기 보다는, 그는 14절에서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라고 명령 하십니다.

이런 주님의 명령에 기드온은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15절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으녘새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여기 그의 의심의 핵심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자기 자신이 무력함으로 둘러 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V16, 'And the LORD said to him, " ...I will be with you, and you shall strike the Midianites...'. The key is the promise of the Lord's presence. Nothing ought to have assured Gideon more than this...but we see Gideon's focus is Gideon & so asks for the angel for a sign after he returns...

With a goat, its soup & cakes of unleavened bread that he puts before the angel, who touches them with his staff for fire to consume it all. The Lord reassures him that he won't die & then calls him to courageous covenant renewal.....We see the focus begin to shift in Gideon after this section that concludes with him building an altar to the Lord...

> The Lord's Priority (25-32)

From v25 the Lord commands Gideon to cut down his father's Asherah pole, destroy his altar to Baal & offer his father's bull as a burnt offering to the Lord on the new altar to the Lord in place of the idolatrous one

Faithful but still fearful Gideon did it with ten of his servants...the fact that he did it at all shows he was beginning to go in the strength of the Lord. The reality that he did it by night because 'he was too afraid' to do it by day, shows he was still on the journey. The journey of assurance only finds its end when we die to ourselves & surrender to God & His awesome grace*

After high-handed idolatry in being the one culpable in the village's idolatry, Gideon's father Joash shows amazing courage in telling the crowd to let Baal avenge himself if he really is a god. So Gideon is reborn as 'Jerubbaal' meaning 'let Baal contend' as a testimony to Baal's impotence.

이런 기드온에게 주님은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답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부수듯 쳐부술 것이다". 이 약속의 핵심은 주님께서 그와 함께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보다 더 기드온을 안심시킬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런 약속에서 기드온은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기에, 자신이 돌아온 후에 천사에게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염소, 국물,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천사 앞에 가져 왔을 때, 주님의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를 가져온 물건에 댔고, 불이 바위에서 나와 모든 물건을 살라 버렸습니다. 주님은 기드온이 죽지 않을 것을 재확인시키시며, 언약을 갱신하도록 부르십니다. 이제 기드온이 주님께 제단을 쌓는 것으로 끝나는 이 부분부터, 이야기의 초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 주님의 우선순위 (25~32절)

25절에서 주님은 기드온에게 명령하시기를, 기드온 아버지의 아세라 상을 찍어 버리고, 바알 제단을 허물로, 그의 아버지의 소를 끌고 와서 수소를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신실했지만 여전히 두려웠던 기드온은, 이 명령을 그의 10종과 함께 행합니다. 그가 이렇게 했다는 사실은, 그가 주님의 능력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보여 줍니다. 그가 두려워하여 감히 그 일을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야 했다는 사실은, 그가 여전히 변화하는 여정 가운데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확신의 여정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죽고, 하나님과 그분의 놀라운 은혜의 굴복할 때 끝이 납니다.

마을의 우상숭배를 이끌었던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는, 바알이 참된 신이라면, 바알 스스로가 복수를 할것이라 말하면서 놀라운 용기를 나타 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여룹바알"이라 불리게 되며, 이는 "바알과 싸우게 하다" 라는 의미가 있고, 그는 이를 통해 바알의 무능함을 나타냈습니다.

> The Lord's Presence with a Sign (33-40)

With Gideon's God-dependant courage in renewing the covenant confirmed, the battle against the enemy is set, V34 'Then the Spirit of the Lord clothed Gideon, and he sounded the trumpet, and the Abiezrites were called out to follow him.'

It's the promise of the Lord's presence from earlier in the chapter fulfilled with the remarkable description the the Spirit 'clothed Gideon.' The Lord's Spirit literally adorned Gideon...to empower him.

David Jones recounted a story of when a committee discussed an invitation to 19th C evangelist DL Moody: "Why must it be Moody? Does DL Moody have a monopoly of HS"
A: "No, but the HS has a monopoly of DL Moody"

Question is, not 'how much of the Spirit do you have, but how much of you does the Spirit have?'

That's the challenge - self assured but never truly free - subject to pride that brings doubt as well as overconfidence or humbly dependent - assured by grace - by God's presence

Even with that assurance.....Gideon puts God to the test for the second time in what we must understand is descriptive - not prescriptive! Wet fleece on the dry ground first...& when that wasn't enough.... the greater sign of the dry fleece on wet ground. It also shows that even though Gideon now has the Spirit of the Lord upon him, He's still God's work-in-progress

God's Last Word to Assure & Empower us

It's what we see all along here from the very beginning where the Lord called Gideon.

언약의 갱신과 함께, 기드온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용기 가운데, 적에 대한 전투가 곧 시작되게 됩니다. 34절.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으니,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 아비에셀 족을 모아 자기를 따르게 하고,"

여기서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으니" 라고 말씀함은, 이전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하시겠다는 약속의 성취임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영은 그에게 능력주기 위에 문자적으로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David Jones 라는 분은, 19세기 전도사 D.L Moody를 초대하기 위한 한 위원회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회상 했습니다: "왜 Moody여야만 하는가? 성령이 Moody 의 소유물이라도 되는가?"
답: "아닙니다, 반대로 Moody가 성령의 소유물인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당신에게 얼마나 성령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아닌, 성령께서 당신을 얼마나 소유하시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 확신을 얻으려 한다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는 의심과 과신을 불러일으키는 교만함에 종속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로 겸손히 주님을 의지함은, 은혜로 말미암은 확신입니다.

그러나 이런 확신 가운데서도, 기드온은 또다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처음에는 양털을 적시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그 기적조차 충분하지 않았던 기드온은, 반대로 양털을 마르게 하고 주변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결국 이는 주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을지라도, 그의 변화는 여전히 진행 중임을 나타냅니다.

우리를 확신시키고 힘을 실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신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지를 보았습니다.

By grace He moved to Gideon – in the weakness of his own failing self-assurance . He clothed Him in the Spirit. He stooped to show His supernatural signs. He empowered Gideon for courageous worship

Hebrews 1:1-2

By His presence trusting in the greatest sign of all – His resurrection from the dead…He has clothed us in His Spirit to move each of us who trust Him from self-assured-self-doubting-sinners, to Christ-centred, grace-assured worshipers!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연약함 가운데 확신 없는 기드온을 확신의 자리로 옮기 시며, 성령으로 입히셨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셔서, 초자연적인 표적을 기드온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담대한 예배를 위해 기드온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히 1:1~2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가장 큰 표적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의 임재를 믿음으로, 그는 우리를 그의 성령으로 옷 입히시며, 기드온과 같이 의심 많은 죄인을 그리스도 중심, 은혜 중심의 예배자로 변화시키십니다.